

2006년 7급 국가직 복원(2006.08.10시행)

[문제1] 사과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8이며, 소득탄력성은 0.4라고 한다. 그리고 사과에 대한 수요가 바나나 가격의 변화에 보이는 교차탄력성은 0.4라고 한다. 이제 사과 가격이 1%, 소득이 2%, 바나나 가격이 2% 상승한다고 할 때 사과수요량의 변화율(%)은?

- ① -0.4      ② -0.8      ③ 0.4      ④ 0.8

[정답] ④

[해설] 난이도 : 中      유형 : 계산

$$\text{사과수요의 가격탄력성} = \left| \frac{\text{사과수요량변화율}}{\text{사과가격변화율}} \right| = 0.8$$

$$\text{사과수요의 소득탄력성} = \frac{\text{사과수요량변화율}}{\text{소득변화율}} = 0.4$$

$$\text{사과수요의 교차탄력성} = \frac{\text{사과수요량변화율}}{\text{바나나가격변화율}} = 0.4$$

사과가격 1% 상승 → 사과수요량 0.8% 감소

소득 2% 상승 → 사과수요 0.8% 상승

바나나가격 2% 상승 → 사과수요 0.8% 상승

결국, 사과수요는 0.8% 상승한다.

[문제2] 다음 중 총통화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민간이 소지한 한국은행권  
② 민간이 예치한 요구불예금  
③ 민간은행이 보유한 한국은행권  
④ 민간이 예치한 정기예금

[정답] ③

[해설] 난이도 : 中      유형 : 이해

이 문제는 총통화(M3)의 구성항목을 암기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다. 통화지표는 거래에 사용가능한 유동성의 지표로서 지급준비금은 거

래이 사용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동일한 논리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본원통화도 통화지표가 아니다.

$$\text{본원통화} = \text{민간보유현금} + \text{지급준비금}$$

**[문제3] Domar의 성장이론에서 투자의 이중성이란?**

- ① 투자에는 독립투자와 유발투자의 이중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② 투자는 사전적 투자와 사후적 투자로 이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③ 투자는 설비투자와 재고투자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을 의미한다.
- ④ 투자는 생산물의 공급능력을 증가시키는 한편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정답] ④**

**[해설]** 난이도 : 下      유형 : 단순 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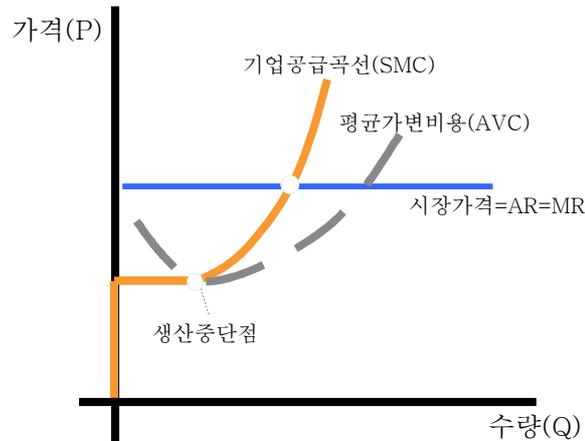
소득증대, 생산성증대, 연관효과(파급효과)가 투자의 3가지 효과이다. 이 중에서 도마의 성장이론은 소득증대효과와 생산성증대효과를 이용하여 균형성장을 정의하고 있고, 파급효과는 허쉬만의 불균형계발전락에서 중시한다.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지 않는 진부한 문제이다.

**[문제4] 완전경쟁하에 있는 개별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고, 이 점에서 가격과 평균수입도 한계비용과 일치하게 된다.
- ② 단기의 공급곡선은 총비용곡선의 최저점보다 높은 단기 한계비용곡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 ③ 장기의 공급곡선은 총비용곡선의 최저점보다 높은 장기한계비용곡선이 되며, 따라서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지게 된다.
- ④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시장수요곡선은 수요의 법칙이 성립되는 우하향의 곡선이 된다.

**[정답] ①**

**[해설]** 난이도 : 下      유형 : 그래프 이해



- ② 이윤극대화 완전경쟁기업의 조업중단점은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으로 이 이상의 MC가 공급곡선이다.
- ③ 완전경쟁기업은 장기무이윤균형은 최적시설규모이다. 따라서 개별기업의 장기공급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④①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하지만, 가격수용자인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수평이다.

[문제5] 정부가 노동자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때 정부가 책정한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 수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 ① 실업을 유발한다.
- ② 노동에 대한 초과수요를 유발한다.
- ③ 임금수준을 상승시킨다.
- ④ 노동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정답] ④

[해설] 난이도 : 下 유형 : 그래프 이해

유효한 최저가격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문제의 경우에는 시장균형가격과 수량에서 거래된다.

[문제6] 다음 중 통화량의 증가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 ① 중앙은행의 공채매입
- ② 법정지불준비율의 인하
- ③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민간의 현금보유비율 감소
- ④ 재할인율의 인상

[정답] ④

[해설] 난이도 : 下      유형 : 이해

통화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 3가지이다.



- ① 공채매입 → 본원통화량 증가
- ② 법정지급준비율 인하 → 대출율 증가
- ③ 민간현금보유비율 감소 → 예금율 증가
- ④ 재할인율 인상 → 재할인 감소 → 통화량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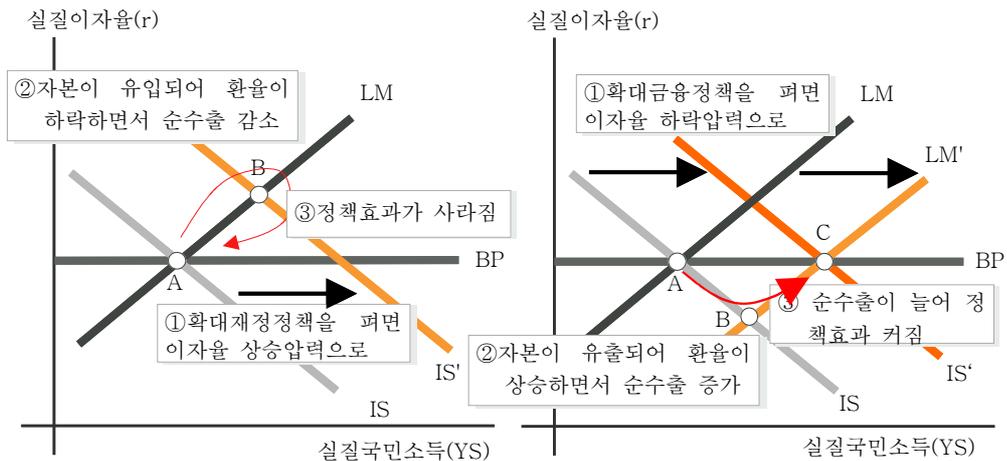
[문제7]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환율제도와 상관없이 금융정책의 효과가 더욱 확실하다.
- ② 환율제도와 상관없이 정책정책의 효과가 더욱 확실하다.
- ③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금융정책의 효과가 더욱 확실하다.
- ④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욱 확실하다.

[정답] ③

[해설] 난이도 : 中      유형 : 이해

문제구성이 치밀하지 못하다, 우선 국제자본이동이 자유롭다고 가정하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금융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고 재정정책만 유효하다. 변동환율제도에서는 금융정책이 재정정책보다 효과가 크다. 극단적으로 국제자본이동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탄력적(BP곡선이 수평)이면 금융정책은 효과가 가장 크고, 재정정책은 효과가 완전히 사라진다.



[문제8] “소비가 미덕이다”라는 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성의 오류에 해당한다.
- ② 저축의 역설에 해당한다.
- ③ 경기가 과열일 때 적용된다.
- ④ 고전학과 모형에서는 절약의 역설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난이도 : 下 유형 : 이해

“소비는 미덕이다”는 “절약은 악덕이다”라는 케인즈의 주장이다. 개인에게 절약은 미덕이지만, 불경기에는 더욱 경기를 위축시켜서 경제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유효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잉설비와 많은 재고상태의 케인즈경제학에서는 저축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지만, 자본이 부족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고전학과 경제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9] 다음 글의 밑줄 친 ㉠,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실물경기변동(RBC) 이론에 따르면 임금이 ㉠으로 상승하고, 이자율이 ㉡ 경우가 노동공급을 늘리기에 가장 적합한 상황이다.

- |          |          |
|----------|----------|
| <u>㉠</u> | <u>㉡</u> |
| ① 항구적    | 높은       |
| ② 항구적    | 낮은       |
| ③ 일시적    | 높은       |
| ④ 일시적    | 낮은       |

[정답] ③

[해설] 난이도 : 中 유형 : 이해

실물균형경기변동이론에서는 생산성변화와 노동공급의 변화를 통하여 경기변동을 설명한다. 여기서는 노동공급의 변화요인을 다루고 있다. 실질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자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래의 노동공급을 미리 실현하여 이자소득을 늘리려는 동기가 생긴다. 임금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면 역시 임금이 높을 때 노동공급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존재한다(임금이 항구적으로 높아지면 굳이 노동공급은 앞당길 동기가 없다.). 이 이론은 노동공급이 매우 탄력적이라고 가정한다.

[문제10] 폐쇄경제에서 정부가 국채발행을 증가시키고 조세를 감소시킬 때 예상되는 결과는?(단, 소비는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              |              |
|--------------|--------------|
| ① 소비증가, 투자증가 | ② 소비증가, 투자감소 |
| ③ 소비감소, 투자증가 | ④ 소비감소, 투자감소 |

[정답] ②

[해설] 난이도 : 中 유형 : 이해

이 문제는 치밀하지 못한 구석이 있다. 투자가 독립투자자로만 구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율과 국민소득에 모두 영향을 받는 것이지 전혀 거론하고 있지 않다. 출제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채 발행 → 이자율 상승 → 투자 감소

조세 삭감 → 소비 증대 → 승수과정 → 소비·투자 증대

두 효과를 종합하면 소비는 늘지만, 투자는 정확하게 방향을 알 수 없다. 출제자가 단순승수만을 전제하지 않았나 추정된다. 그렇다면 투자는 투자는 감소한다.

**[문제11] 두 국가가 상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당사국의 소비자 물가를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 ② 당사국 간의 수입에 의하여 대체되는 산업에는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당사국 간의 무역규모가 증가한다.
- ④ 전 세계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킨다.

**[정답] ④**

**[해설]** 난이도 : 中 유형 : 이해

- ①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에 특화하면 양국에서 더 싼 가격의 상품이 수입되므로 물가가 하락한다.
- ②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비교우위를 가지지 못하는 산업은 위축된다.
- ④ 관세동맹의 효과와 같이 FTA가 결성되면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더 비교우위를 가진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줄고 양국의 교역이 늘어난다. 양국의 교역이 늘어나는 것은 무역창출효과로서 세계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무역대상국이 바뀌는 것은 무역전환효과로서 세계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양국은 서로 이득이지만, 지구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문제12] 다음 중 환율상승 요인이 아닌 것은?

- ① 국내물가상승                      ② 자본유출증가
- ③ 해외경기호황                      ④ 국내이자율의 하락

[정답] ③

[해설] 난이도 : 下    유형 : 이해

환율이 상승하려면 외환에 대한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감소해야 한다.

- ① 국내물가 상승 → 순수출 감소 → 경상수지 악화 → 환율 상승
- ② 자본유출 증가 → 자본수지 악화 → 환율 상승
- ③ 해외경기 호황 → 수출증가 → 경상수지 개선 → 환율 하락
- ④ 국내이자율 하락 → 자본순유출 증가 → 자본수지 악화 → 환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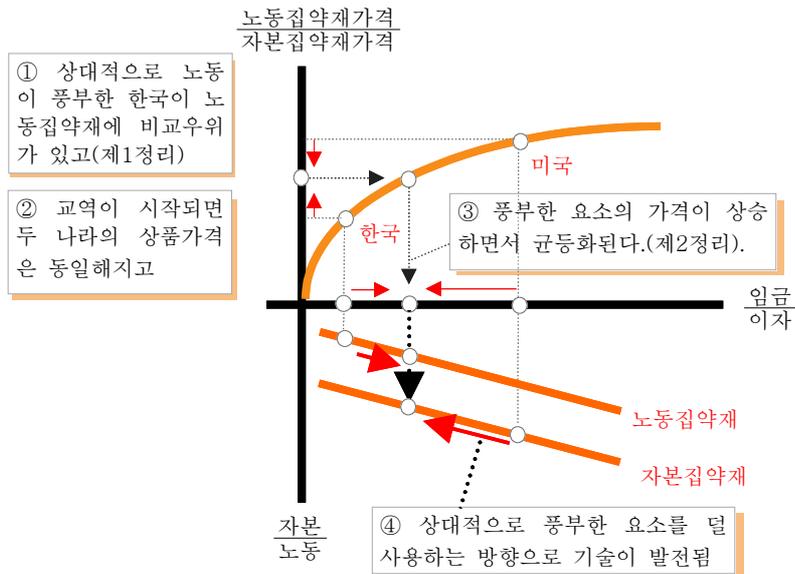
[문제13] 다음 중 자유무역의 효과로 옳은 것은?

- ① 산업구조의 차이가 좁혀진다.
- ② 임금격차가 좁혀진다.
- ③ 헥셔-올린정리에 의하면 후진국은 일반적으로 자본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한다.
- ④ 무역의 이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역이후의 상대가격이 무역이전의 상대가격과 같아져야 한다.

[정답] ②

[해설] 난이도 : 中    유형 : 이해

헥셔-올린 정리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①③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더 커진다. 즉, 산업간무역을 실시하면 산업구조 차이가 점차 커진다.
- ② 헷서-오린의 제2정리(요소가격균등화정리)
- ④ 무역에 의한 이득이 크려면 국내교역조건과 국제교역조건의 차이가 커야 한다.

[문제14] 다음 중 유량변수가 아닌 것은?

- ① 저축                      ② 투자                      ③ 국부                      ④ 소비

[정답] ③

[해설] 난이도 : 下    유형 : 정의

저량변수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변수이고, 유량변수는 특정기간을 정해서 측정되는 변수이다.

[문제15] 다음 중 라이프사이클 가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일생동안 소득수준은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
- ② 개인들의 나이에 따라 소비패턴이 달라진다.
- ③ 개인의 소비는 일생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기대소득의 현재가치에 의존한다.
- ④ 소득이 높은 시기에는 소비는 많고 소득이 낮은 시기에는 소비가 적다.

[정답] ③ 또는 ④

[해설] 난이도 : 中 유형 : 그래프 이해

소비와 소득이 곧바로 연결된다고 보는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이 실증적으로 단기에만 정당화되면서 소비함수논쟁이 불을 붙게 된다. 라이프사이클가설에서는 유동성제약효과를 추가하여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또 시계열자료나 횡단면자료에서 소득과 소비가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자산소득이 높은 시기에 소득수준이 높다.

생애주기가설이 영구소득가설과 구분되는 측면 중 하나는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③번은 영구소득에 대한 기술로 볼 수도 있다. 모호한 기술임에 틀림없다.

[문제16] 다음 중 총수요곡선의 이동요인이 아닌 것은?

- ① 소비가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② 장래에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③ 외국에서 우리나라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④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정답] ②

[해설] 난이도 : 中 유형 : 그래프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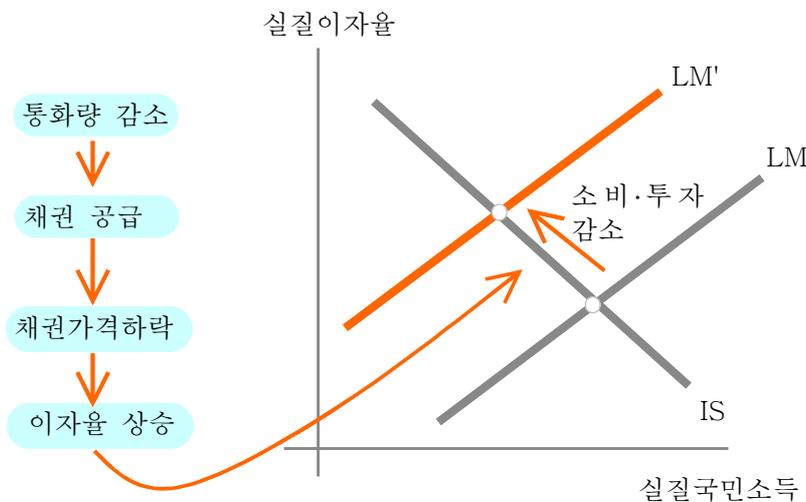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소비와 투자가 줄기 때문에 총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17] IS-LM모형에서 통화당국이 통화공급을 줄이게 되면 사람들은 채권을 ㉠ 하므로 이자율이 ㉡ 하고, 투자와 소득이 ㉢ 한다.

- ① 매각, 상승, 감소
- ② 매입, 상승, 감소
- ③ 매각, 하락, 증가
- ④ 매입, 하락, 증가

[정답] ①

[해설] 난이도 : 下 유형 : 이해



[문제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하는 이유는 임금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효과가 여가-소비간의 대체효과보다 작아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② 수요곡선이 완전탄력적인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생산자가 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반면,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인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 ③ 미복원
- ④ 미복원

[정답] ②

[해설] 난이도 : ? 유형 : 이해

- ① 노동공급의 후방굴절이 나타나는 이유는 열등성을 가진 노동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 ② 종량세를 부과하면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쪽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귀착된다. 극단적으로 완전비탄력적인 쪽이 100% 부담하고, 완전탄력적인 쪽에는 전혀 귀착되지 않는다.

[문제19] 다음 중 역선택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화재보험
- ② 의료보험
- ③ 미복원
- ④ 미복원

[정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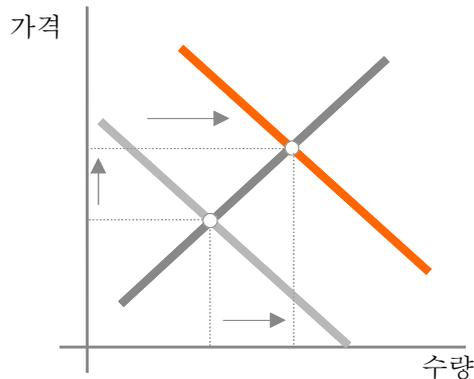
[해설] 난이도 : ? 유형 : 이해

[문제20]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량도 늘은 경우 해당되는 것은?  
(단 이 재화는 정상재임)

- ① 이 재화의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했다.
- ② 이 재화의 보완재의 가격이 상승했다.
- ③ 이 재화의 생산요소가 가격이 상승했다.
- ④ 이 재화의 생산요소가 가격이 하락했다.

[정답] ①

[해설] 난이도 : 下 유형 : 그래프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와 같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자체 이동해야 한다.

- ① 대체재의 가격 상승 → 수요 증가
- ② 보완재의 가격 상승 → 수요 감소
- ③ 요소가격 상승 → 공급 감소
- ④ 요소가격 하락 → 공급 증가

[해설평]

한마디로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지 못하였고, 기출문제를 단순히 변형하는 정도로 아주 무성의하게 출제되었다. 경제학은 가정의 학문인데도 가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출제수준도 너무 낮아서 변별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단순암기식의 문제구성에다 하급수준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상급수준의 문제도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 거기에다 문제도 대부분 단순암기를 요하는 것이어서 이해과목인 경제학의 특성도 살리지 못하였다. 웬만큼 공부한 사람이면 90점 전후로 득점하였을 것이다.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은 허탈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해설은 본인의 사이트(<http://eco.119.c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에게 탐스런 결실이 기다리는 가을이 되길 바랍니다.